

| 위원회 동정 |

위원회 새 청사 이전

소통 강화 위해 정부청사 나와 S타워에 새 둥지

이세종 대외협력실

위원회는 1월22일 정부 서울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S타워(아래 주소 참조)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정부 서울청사의 경우 참여주체들의 출입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한 정부청사 입주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원회가 수용해 문성현 위원장 취임 이후 전격 이전을 진행하게 됐다.

새로 이전한 S타워에는 7층과 8층에 자





리를 잡았다. 노사정 최고위 회의인 본위원회 등이 개최되는 대회의실은 7층에 위치하고, 8층에는 중회의실 2개와 소회의실, 그리고 회의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무국이 입주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가 주인이 되는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의 장을 정부청사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옮겼다”며, “위원회가 새 청사 이전을 계기로 참여주체와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구가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8층